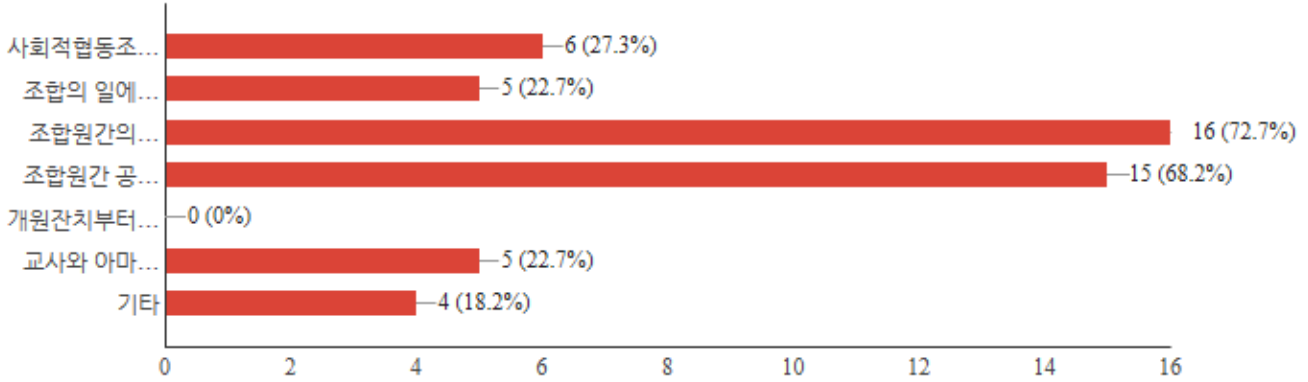


2016년 달팽이 운영을 위한 조합원 설문

1. 2016년 달팽이에서 중점에 두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중복체크가능)(응답 22개)



1-1 위에서 답한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어떤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응답 22개)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랫방 윗방의 소통부재의 해결도 필요할것 같고 서로 얼굴 보며 이야기 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조금씩 좋아질꺼라 생각합니다

조합원간의 좀더 편하게 대화할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교사와의 면담이 좀더 많은 기회와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카카오톡에 1:1 통화도 있지만 다수가 같이 통화할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기능으로 교사+아빠+엄마 셋이 동시통화로 면담하면 어떨까요?

정규행사 이외의 소모임이나 교육, 작은 행사를 마련해 아마들끼리 자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재미있고 의미있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시기별로 늘 하던 행사도 위 방향들에 맞추어 알차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합원과 소통(아빠라도 이사진이라면 해당 방모임 참석)

구체적인 업무분담 또는 프로그램수립

마실주선 및 다양한 친목 장려

조합의 의견 수렴 및 방향 설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명확한 원칙하에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할 것 같다. 통합방모임, 조합원 교육 등을 이용

해도 좋을 것 같다.

정규 모임때마다 구호와 같은 짧은 말로 철학을 환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구성원간의소통을활발히할수있도록다방면으로지원하고적절한개입과의견통합노력이진행되어야한다고봅니다.

. 지역사회와 연대하여 어떤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을지 몇가지 가능한 후보군을 선정하고 조합원들과 토론을 통해 사업화하여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합원 교육 정기적으로 진행 -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통해 스스로 공부도 되고 교육 후에 의견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친목 도모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합원으로써 역할 의무 공유, 공동육아 역사에 대한 리뷰 연1~2회,

너무 긴 총회나 회의는 지양하고 짧게 여러번 만나거나 소모임과 같이 일상속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각 조합원에 대한 관심과 친절한 안내. 배려. (모든 조합원이 각 소위에 소속 되어 있으므로, 이사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안부를 묻거나 개인 동정을 파악하고. 아이들도 챙기고... 그래서 그게 이사회에 전달되어 힘겨워 하는 조합원들을 지지해주고 독려해 주면 좋겠다는. 얼핏. 정리되지 않은 생각입니다. ^^ 이로 인하여 이사님들 일이 과중 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냥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조합원들이 어떠한 생각과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알고 그것을 어떻게하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반영하려고 있는지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조합원들은 이사회가 진행하고 결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부여하기 보다, 스스로 함께 하고 싶은 모임이나 이벤트가 지금보다 더 많아서 부담없이 와서 즐기고 배우고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협간 네트워크 형성, 공동육아철학에 대한 강의, 책 스터디, 생각나누기,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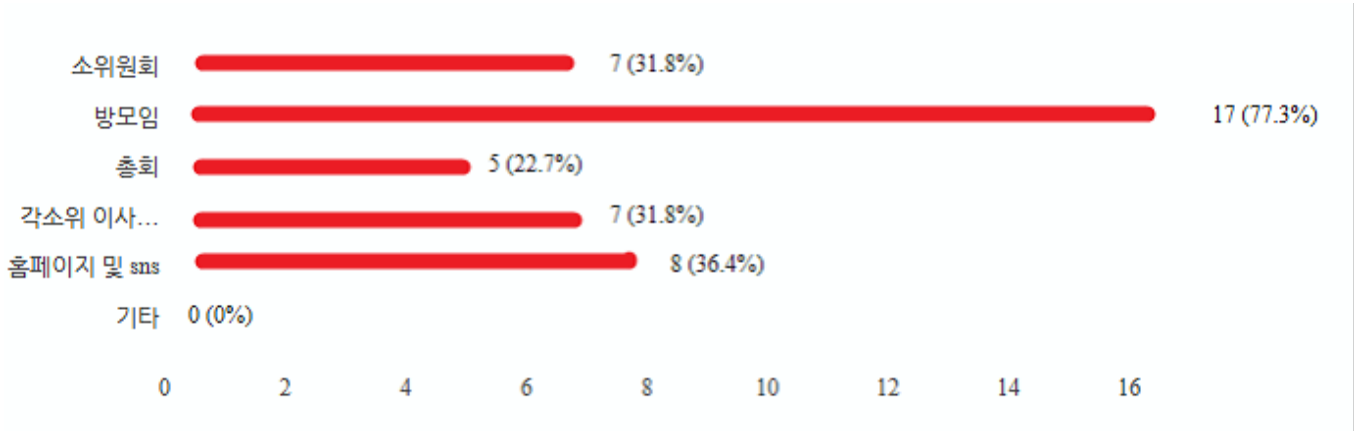
기타의견으로 영구터전 등 터전 건물에 대해 달팽이가 가야할 방향을 올해에 꼭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육아란 무엇인지를 서로 공유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듯 싶습니다. 그것이 조합원 교육이나 정기적인 간담회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서로가 생각하는 달팽이의 모습에 대해 공유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논의되어 지는 이야기들을 오픈하여 이사회만이 힘든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같이 실현 하는 일

이사회 구성원간, 조합원 간 기본적인 공동육아 정신에 대한 합의. 확인. 그것을 바탕으로 한 신입 조합원 선발.

2.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사회와 조합원의 소통구조(채널)는 무엇인가요?(중복체크가능) (응답 22개)



2-1 이사회와 조합원들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응답 22개)

이사에게 업무가 너무 편중된 느낌이고, 복잡한 일일수록 일임하게 되어서 소통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소위안에서라도 좀 더 자주 공유가 되었으면 하고, 무엇보다 들어주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자주 만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등 하원시간이나 행사 때 등등) 평소에 자주 만나지 못하고 서로를 나누지 못하는데, 이사회에서 달팽이를 위한 일을 논의하고 처리하다보니 신입 아마들의 경우 함께 가고 있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친해져서 서로의 이야기를 더 놓고 또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방모임시 격월로 조합 운영 간담회 시간을 마련해 이사진과 직접 의사소통할수 있는 자리 마련. 내가 속한 소위의 이사가 아닌 다른 이사, 이사장과도 직접 대화할 자리가 중요한 것 같음.

이사회와 조합원들간의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방법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예로 이사회와의 대화처럼 직접적인 소통창구 마련

조합원과 소통(아빠라도 이사진이라면 해당 방모임 참석)

기본적으로 방모임에 한가구에 한분씩은 포함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을 할때 너무 급하지 않게 조금은 천천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결정이 너무 빨리 이루어지면 거기에 의견을 덧붙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이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방모임, 소위모임등의 작은단위의모임에도 이사회와의 조금더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면합니다.

이사회가 '그들만의 이사회'가 되지 않고 조합원 개개인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방모임에 가끔 참여하거나 방모임 후기를 주의깊게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이야기와 사안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소위별로 논의된 사안과 이사진들의 고민으로 잡히게 된 커다란 줄기의 방향을 방모임에서 제시하고 이것에 대한 의견수렴 해보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이사진의 고심끝에 내려진 결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더 나아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평 조합원이 제기하는것도 힘들지만 그 경우 누군가의 의견은 "당신이 잘 몰라

서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습니다."의 답변은 다소 불편했던 것들이 사실입니다.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과 논의가 전제되지 못한다면 소통이 이뤄지기 힘들것이라 생각합니다.

조합원의 의견에 피드백을 분명히 해주는게 필요한거같다

방모임 또는 소위모임에 가끔 이사회가 참석하여 소통하기

1번 문항에 대한 답과 비슷할 듯 싶어요. 그냥 과하지 않은 관심과 배려만 있으면 소통은 알아서 따라 올듯 이요. ^^

이사회는 조합원을 대표하는 조직임을 잊지 말자. 이사회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함. 또는 필요에 따라 이치에 맞는 논리로써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어차피 모두 아이들을 위해 모인건데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해질거라 생각합니다. 좀더 가족적인 분위기와 친목이 있으면 더욱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소모임이나 소위모임, 방모임 등에서 서로 평소 의견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도 좋을것 같고, 여건이 된다면 이사장 / 이사가 가정방문이나 초대, 또는 티타임 형식으로 일대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건 어떨까 합니다.

소위에서 소통이 잘 이루어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는 각 소위의 여론을 잘 수렴하고 조합원은 소위활동을 적극적으로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홈페이지에 이사회와 조합원간의 이야기 소통 메뉴를 하나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사실 방모임만으로는 의견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사진에게 말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공식적인 의사전달이 필요한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이사의 역할이 이사, 조합원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야 한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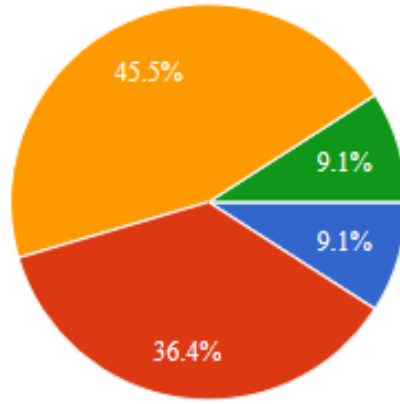
모임이 많은 관계로 소통창구는 다양하지만, 모든 조합원들이 발언을 하고 듣는것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 피로도가 쌓이는 원인을 줄이기위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의내용에 관해 말로만 하면 이후에 기억하기 어렵고 논쟁의 핵심이 빗겨나가는 경우가 많아 이해도가 떨어짐으로. 필히 프린트물을 사전에 준비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한 후, 참석자들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주고, 건의내용의 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시간을 단축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홈페이지 회의록에 기록(정기총회의 경우, 참석못한 사람을 위해 요약회의록 보다는 자세한 회의록이 필요할 듯함)

열린 이사회. 방모임의 민주적 진행.

3. 본인 스스로 조합운영 또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니까? (응답 22개)

매우그렇다	2
보통이다	10
그렇지 못하다	2
매우 그렇지 못하다	0



- 매우그렇다
- 그렇다
- 보통이다
- 그렇지 못하다
- 매우 그렇지 못하다

3-1. 위 문항에서 '그렇지 못하다' 답하셨다면 그이유를 적어주세요(응답 6개)

아랫방 윗방 갈라진듯한 분위기가 조금은 불편하고 선뜻 참여가 주저됩니다.

임신과아직4살인아이의성향상적극적으로참여하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친구따라 강남가는 스타일인데 아직 친한 아마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출근은 빠르고 퇴근은 늦고 출퇴근 거리도 멀다 보니 평일에 참여할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부족했습니다.

가끔은 개인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할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행사나 운영과정에 힘이 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달팽이에서 이방인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달팽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과 같은 느낌을 받을때는 조합 운영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이런것에 내가 참여해도 될까? (나한테 선택의 자격이 없는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때도 있었습니다. 신입조합원이 잘 모르는 것이 있는것과 어색함을 느끼는 것을 못미덥게 생각하지만 말고, 우리 안으로 끌어오고, 함께 이야기하며 알려주고, 배워가는 달팽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 작년에 가장좋았던사업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히 적어주세요 (예-개원잔치-등등.자유롭게 적어주세요)(응답 22개)

전체모꼬지-교사회와졸업가구등모두가모여서서로이야기를나눌수있어좋았습니다.

시장잔치-평소 아이들에게 실제 돈을 주며 아직 구매를 하게 해본적이 없었는데, 자율의지로 구매할 수 있다는거에 자신감도 생긴거 같고 매우 뿌듯해했어. 시장잔치의 준비를 아마와 선생님이 함께 준비하는 모습도 참 알차고, 어떻게 진행될까 설레이고 참 재밌었어요. 극장 아이디어도 참신!!

큰모임보다는 마실처럼 작지만 대화 할 시간이 많은 행사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별히 좋거나 싫지 않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시간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감으로 참석하는 느낌이랄까... 행사를 통해 조합원들간 소통된다거나 전통에 대한 것을 알아간다 하는 것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전체 모꼬지가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졸업가구와 선생님들이 함께 하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셨던 것에 너무도 고마웠고, 아빠들, 엄마들이 함께 얼굴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통해 더욱 친해지는 기회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개원잔치-아이들이 즐거워해서.

김장행사 - 요즘은 김치를 직접 만들어볼 일이 거의 없는데 조합원들과 같이 배워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단오잔치. 즐거운 놀이 좋았다. 다만 이웃들과도 함께 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들만의 잔치인 점 아쉽다.

공식이 특강 : 조합원간의 관계에대해 많은 힌트가 되었음

해넘기기 - 모두가 편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라 생각

단오 — 대기하거나 아무것도 안하는시간없이 대부분의 조합원이 행사동안 일을 맡아하고 즐길거리가 있어서

시장잔치입니다.

전체 모꼬지 - 행사도 좋았지만 밤새 수다떨며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던거 같고 마치 대학때 MT를 간거 같은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단오:메르스로 많이 축소되었지만 아이들과 단오놀이를 즐길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장. 이유는 다 같이 일하며 놀며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재미있었음. 운영소위의 세세한 준비로 작업 과정이 매끄러웠음.

개원잔치, 단오, 전체 모꼬지, 엄마 모꼬지, 해넘기기 잔치까지 저에게는 다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그 뒤에 들리는 여러 이야기는 차차하고서라도 그 순간 만큼은 순수하게 행복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더 많이 즐기고 싶어요. 모두 같이.

해 넘기기 잔치. 조합원 모두가 행사 준비에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장 때도 모두가 나서서 일을 나누고 협력해서 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엄마 모꼬지? 많은 조합원들이 자발적 참여에 의해 육아에서 벗어나 의무적 아마 활동이 아닌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좀더 개인적인 일들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좀더 서로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기회가 되었습니다.

파장동 마을잔치. 해넘기기 마을잔치때 같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재미있었고 공동육아를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었다. 해넘기기때 아이들 공연도 너무 좋았고 선생님들, 가족 장기 자랑도 넘 좋았다

개원잔치(체육대회)

먹거리 공급처 변경건. 달팽이의 민낯을 볼 수 있어 좋았음.

5. 만약 내가 이사진이라면 올해 새롭게 하고싶은 사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응답 22개)

조합원 개개인의 지식과 경험, 특기 등을 나눌 수 있는 '나도 강사' 프로그램 같은 걸 해보고 싶고, 수원 지역 사회에 달팽이어린이집의 존재와 공동육아 활동을 페이스북 등 온라인을 통해 널리 알리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daum view** 같은데 수원공동육아어린이집 뜨면 조합원들도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터전 계약기간 확인 및 터전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교사회에 대한 고마움 표시

참신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네요. 뭔가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해요.

주말청소 그룹제 - 생각보다 할일이 많더군요. 한집이 하기에 주말이 너무 벅차고 한데 두집이나 세집이 조인해서 하면 좋을거 같아요. 주말모임 활성화 - 주중 낮시간에 직장인들이 참여할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맞는 가족들이 모여 가볍게 운동이나 놀이 또는 관람이나 여행 등이 있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빠와 아이가 함께 떠나는 모꼬지> 평소 아이들이 엄마에게 많이 의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면이 많아서 아빠가 상대적으로 집에서 존재감이 좀 약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이와 아빠만의 구성으로 모꼬지를 다녀오면 아빠의 소외감도 채우고, 아이에게 아빠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하게 해줄 좋은 기회가 될 거 같아요. 아빠 혼자 아이데리고 막상 여행다녀오려면 어디갈지 뭐할지 좀 막막한데, 여러 아빠들과 친구, 형님이 함께 가는 여행이라면 아빠도 아이도 더 신날거 같아요.

달팽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개원잔치때 하는 아이들만의 운동회나 단오때 했던 팔씨름 대회 같은것도 재밌었지만 가족이 한팀이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경기들 예를 들면 배드민턴, 탁구, 볼링과 같은 경기에 팀을 이뤄서 서로 연습도 하고 승점도 계산하여 다양한 경기를 함께 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빠들만의 경기나 엄마들만의 경기가 아닌 엄마 아빠가 함께 힘을 모아 진행할 수 있는 게임을 진행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아이와 함께 참여하기

교육및강연회주최

미니 토크쇼: 원하는 조합원이 30분 정도의 시간동안 왜 공동육아를 시작했는지, 하면서 어떤 걸 경험했는지, 달팽이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발표하고, 30분 정도 질의응답. 격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토크쇼 진행.

세미나의활성화입니다.큰눈이추진한마당있는집같은세미나처럼다양한주제로소모임을활성화시키면어떨까합니다.지난해부터논의되어온먹거리세미나부터시작해도좋지않을까합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처럼 조합원들이 저녁때 모여 간단한 다과를 나누며 대화할 수 있는 시간 마련

먹는 행사 줄이기. 가벼운 운영. 공동육아에서 가능한 캠페인(돌고래쇼 안보기. 아무것도 안사는 날, 고기 없는 날, 촛불켜는 밤 등) 공유

글쎄요... 너무 많은 사업 안하셔도. ㅎㅎㅎ

달팽이 터전 탐험지도와 나들이 위치지도를 만들어, 홈페이지상에 게재입니다.

달팽이어린이집 주변 이웃과의 관계 형성

공동육아와 관련된 강좌나 생각나눔자리, 마을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잔치(2014년 마을잔치 같은), 영구터전마련을 위한 기초작업

달팽이어린이집vs다른 어린이집 축구시합 같은 거 해보면 어떨까요.우리끼리 좀더 단단해 질꺼같아요

해넘기기 잔치때 가족 장기자랑도 좋았지만 내년에는 엄마, 아빠 따로? 같이? 하는 코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르네상스 사업을 다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달팽이 내부적인 교육을 위해 진행하지 않을 걸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내부 교육은 더 미흡했던 것 같고 유익한 강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부 교육 후 간단한 토론의 시간을 갖는 방법도 좋을듯 합니다

달팽이에 갖히지 말기 운동. 넓게넓게 살기 운동.

달팽이의 역사 정리. 공동육아 달팽이 어린이집이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떤 원칙을 갖게 되었는지를 정리하고 공유하며 앞으로 어떤 달팽이를 만들 것인지 구상해보고 싶습니다.

조합원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소규모프로그램 (주말 터전마실 등)

6. 조합원으로 한해동안 하고싶은 일들이 있으신지요. 또 본인은 어떤 역할을 맡을 수 있는지 적어주세요 (예-책읽기모임 등, 각종 소모임 형태도 좋고 어떤내용도 좋습니다)(응답 22개)

비슷한 관심거리의 소모임 활성화 - 뭐든 열심히 참여?

그냥 관심가는 소모임에 참석하는 것 말고는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책읽기 모임을 하고 싶으나, 내년부터는 시간적인 여유가 힘들것 같습니다,

가끔 주말에도 직장에 나가게 되어 참석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되도록 많은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활동을 생각하진 못했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큰거없고 소위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람.

예전에 어떤 선배 아가가 매주 5시 하원 시간 30분 전에 터전에서 아이들에게 책읽어주기를 정기적으로 했던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이들이 책 읽어주는거 참 좋아하는데...저도 정기적으로 주1회씩 책읽어주기 해보고싶어요. 2명의 아가가 짝이 되어 함께 번갈아 가며 해도 좋을거 같고요. 터전에 있는 책 말고, 집이나 도서관에서 책을 준비해서 가져가는것도 아이들이 더 신선해할거 같아요.

소모임 참여

1. 책 읽기 모임 - 공동체가 대안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2. 버스킹(?) 달팽이 아이들과 아마들이 공원 같은데서 같이 노래하고 즐기는 것도 재밌을거 같아요.

* 바느질모임 지속 확대 - 지역맘 카페에 알리거나 지인들 초대 - 수익사업 모색하기. 달팽이끈이나 놀잇감 판매 등 * 텃밭모임 꾸려보기 - 교사회와 상의해 작물계획. - 알차게 거두고 다같이 즐기는 달팽이텃밭, - 계란껍질이나 음식쓰레기 퇴비화 - 지렁이 키우기, 이옴발효액 만들기 등

현재 존재하는 책읽기 소모임이 적극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필요한 역할 뭐든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책읽기 소모임을 만들어, 아이들과 아마들과 함께 수원내 역사장소 탐방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육아로 적극적인참여가어렵겠지만책읽기모임,먹거리세미나등에는참여하여공부하고싶습니다.

원전이나 식품등 섭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에 대한 탐구및 지식공유

포ష을 배우고 싶은 분에게 교육 가능합니다. 단. 수요일 저녁이나 주말만 가능^^ 아빠들끼리 모여서 간단한 반찬 만들기^^

독서토론 모임 - 현재 매주 토요일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탈무드식 독서토론 모임에 참석 중인데, 달팽이에서도 적용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사회에서 진행하시는 일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공동육아 관련 책, 영상 보고 토론하는 소모임

아빠소모임 참석

여러일들이 있으니 저는 적극적극 참여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빠모임의 활성화

소모임 1-2개 정도 운영하는 것?? 이야기모임 같은 것에 열심히 참여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소위별 설문입니다

운영소위

1. 터전살림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 또는 개선 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으면 적어주세요.(응답 22개)

행사시 먹거리 간소화.

운영소위의 역할이 행사시 조합원들의 식사를 중점적으로 맡는 곳이 아닌 달팽이 운영의 전반적인 기획과 관리의 역할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없습니다.

엄마들의 반찬 나눔, 저녁 밥 같이 해 먹기 등이 활발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진공청소기 구매(각출을 해서라도 ...) -

주방살림을 한 번 전체적으로 재정비하면 좋을 거 같아요. 노후한 것들은 버리고 새로 장만한다던지, 싱크대수납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라벨작업을 한다던지 등요. 물론 이건 운영소위 만의 일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같이 해야겠죠^^

생각해 볼게요.

특별히 없습니다

터전 물건들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표시하는 자리 이름표나 사진들이 있으면 할때도 있는데요 필수 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을까요? ^^;;

지난한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일러 간편 보일러 사용 방법, 나갈때 확인할 것 표시해주면 좋을 듯해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이불빨래의 경우 세탁과 건조를 주말청소 당번이 하더라도 터전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서 좋을거 같아요. 매주 돌아가며 집으로 안옮겨도 되고. 수건의 분실도 없어지겠지요. 정기적으로 이불을 빨래줄 걸어서 터전 마당에서 햇빛소독도 하면 좋을거 같고요.

텃밭 작물과 아이들 먹거리의 연결(텃밭 운영을 보다 내실있게)

벼룩시장이어나나바다장터같은안쓰는물건을서로나누는장터가좀더활성화되었으면합니다.

터전 내 창고(지하, 뒷편)정리가 필요한 듯합니다

터전 살림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여... 잘 모르겠어요. ^^

훌륭합니다.

잘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터전에서 아이들이 있을때 외부음식 반입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2. 현재 식단에 대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적어주세요(응답 22개)

가공식품의 비율을 줄이고 현재 운영에서 추구하고 있는 자연주의식단 좋아요~ 오후간식이 가끔은 너무 가벼워 하원시 배가 많이 고프는 날도 있는 거 같아요. 12시 점심이후 저녁식사까지 시간감이 제법되니, 오후간식으로 과일만은 좀 부족한 거 같아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후 간식이 과일 이외에도 다양해졌으면 함.

현재 자연식위주의 식단으로 만족합니다.

간식이 과일이나 가벼운 것들이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녁밥을 아주 잘 먹거든요.

월요일 아침식사는 왜 항상 누룽지 죽인가요...? 좀 더 영양이 있는 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식에 밀가루가 예전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줄이면 좋겠어요. 과일이 비싸면 고구마, 감자, 옥수수, 계란 등등이 2회 이상 중복되어도 밀가루보다는 나올거 같은데요. 나들이때 먹는 간식도 한번 짚고 가면 좋겠어요. 초콜렛, 포도쥬, 사탕 등등은 나들이 간식에서 배제하였으면 좋겠네요.

가끔 아이들의 점심반찬이 부실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점을 보완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식이 너무 간단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일이나 떡같이..) 간식이 조금 더 든든했으면 좋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재철간식-과일을 간식으로 주시는 것에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나,터전에서 간식이 나왔을때 아이가 사과 한 두 쪽 , 배 한두쪽 밖에 먹지 않고 와서 너무 배고파합니다 조금은 든든한 간식을 넣어주시면 좋을것 같아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식단은 만족스럽습니다.

수입 수산물 사용이 없으면 함

현재 식단에 만족합니다

없습니다.

좋다. 제철 채소 과일 위주 유지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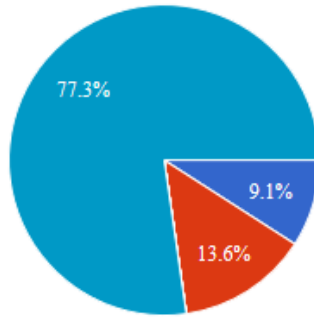
만족합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현재 식단에 만족합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을 맛 볼 수 있어 좋아요.

3. 현재 방장은 운영소위 소속입니다. 방장에 적합한 소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22개)

운영소위	2
교육소위	3
홍보소위	0
재정소위	0
시설소위	0
특정소위 소속으로 제한할 필요없음	17



- 운영소위
- 교육소위
- 홍보소위
- 재정소위
- 시설소위
- 특정소위 소속으로 제한할 필요없음

3-1 위 문항에 답한 이유를 적어주세요(응답 22개)

방모임은 교사회와 아이들 지내는 이야기가 주되고, 공동육아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는 자리라 생각 되므로. 현재는 터전살림운영에 초점이 맞춰진 거 같아 방모임이 딱딱하게 흘러가기 쉬운 듯요.

윗방-운영 아랫방-교육으로 관심사에 맞는 소속이면 좋겠네요.

운영소위에서 필요한 공지등은 방장이 사전에 운영이사나 소위원과 교감을 통해 할 수 있으므로 굳이 방장을 운영에서 할 필요는 없고, 운영 소위에 방장을 맡기는건 운영소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 같음

공동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있다면 방모임을 운영하는데 더 편하고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터전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장이 아랫방과 윗방의 대표로 여겨지고, 또 그런 역할을 더 해주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운영소위업무에 반영되는 이야기가 많을 수는 있지만 방모임에서 이야기 되는 것들은 여러 분야에 대해 이야기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반드시 운영소위에 속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이사가 이사장 부재시 다음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터전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장에 특별한 조건은 필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잘 이끌어줄 리더의 모습을 갖춘사람면 충분해봅입니다.

운영소위이기에도더잘하고계시는부분도분명있지만인원의제한으로부담감도동시에있을듯합니다.서로간의소통만잘이루어진다면소위는상관없지않을까합니다.

방모임의 내용이 운영소위에 국한 된것이 아니라 아이들 생활과 달팽이 전반적인 부분에 관한 것인

데 굳이 운영소위에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든 아랫방이나 윗방에서 아마들간의 의견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분이 하셔도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방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다만, 방 구성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여 이사회 등에 전달할 것인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함.

방모임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라면 소위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방장의 역할만을 유지할 것이라면 특별한 소위에 속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유 없어요.

방장이 운영소위여야하는 이유가 분명치않고 실제적인 역할역시 특정 소위로 제한할만큼 특수한 업무영역을 가지고있지않는거같다

방장의 방모임때 조합원의 의견을 잘 모아서 이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특정소위와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소위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거 같아요

방장의 역할이 특정 소위와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합처럼 아랫방장은 교육소위일 필요 있다면 바꿀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방장이 방모임 날짜를 투표하고, 이사회 전달사항을 전달하고, 기록하는 업무라면 그냥 방 모임에서 누구라도 추천이나 지원 받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장의 역할과 운영소위가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 같지 않음.

4. 운영소위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적어주세요(응답 22개)

늘 행사 뒤치닥거리 하는 모습. 이런 것에서 벗어나 운영소위 만의 생산적이 사업 기획이나 교육등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운영소위에서의 업무 중 부당하게 운영에서 하시던 일은 과감하게 함께 하는 일로 돌리되, 그 선과 명분을 명확히해주시고 돌리지 않은 나머지 업무는 가급적 축소의 방향으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죄송합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 없습니다. 지금도 너무 수고 많으세요.^^

일거리를 좀 줄이거나 다른 소위와 나누었으면 합니다.

소위 구성수가 적은 것 같아 다른 소위에서 운영으로의 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김장 2틀로 나눠서 하는데, 첫날참석하는 사람위해서 맛나는 간식 충만하게 챙겨주세요. 둘째날은 수

육

특별히 없습니다

바쁘고 힘들땐 다른 소위에 기대도 됩니다.

고생하시네요

가구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재밌는 이벤트 같은 것도 자주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말 고기 파티 ??

잘 하고 계십니다. 수고 많으세요.

최소필요인원이 유지되었으면.

너무열심히해주고계셔서더드릴말씀은없습니다.운영소위분들이지치지않게다른소위,전체아마들에게더많은부분을요구하셔도될것같습니다. 아마배정에관하여총회때나왔던이야기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늘 애써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지요.

2015년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화이팅!!

아이들 식단과 관련된 일들이 많은 듯합니다. 꼭 점심식사 한끼가 매일매일 다른 식재료를 써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틀연속 같은 국이나 반찬이면 안되나요?

행사진행시 너무 부담을 갖지 않고 조합원들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항상 가장 많이 고생하는 소위라고 생각해요. 매달식단이 공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달의 식단 평가라던지 아쉬웠던 점이랄지 코멘트를 달만한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식단 게시판에 그런 댓글을 다는 분위기는 아니고..그냥 통보식이지요.

힘내세요.

쿠킹클래스 같은 자리가 활성화되면 너무 좋을 듯요.

홍보소위

1. 달팽이 행사 진행시 홍보소위에서 좀더 신경써서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응답 22개)

지역 내 홍보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행사가 달팽이 내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도 있을텐데 이를 널리 알리고 참여를 늘리는 고민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달팽이 행사시 출석, 행사일정, 인원배분 등등 행사에 관련된 사항들이 문서서 정리되어 조합원들에게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sns나 블로그를 활용해서 지역사회와 인터넷 상에 공동육아를 더 널리 알려주세요.

지역사회나 졸업가구에 좀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공동육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거 같아요. 홍보활동시 미리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 후 나가는건 어떨지...

졸업가구와의 연계성

홍보소위가 행사의 내용과 준비물 등을 전달하는 일을 하셨지요. 그 이상 홍보소위만의 독특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이 잘 안나는 데 뭔가 생각하면 멋진 일을 해주실 수 있을 듯.

행사 이후 뒷풀이시에 물론 누군가는 아이들 밥도 먹여야 하고, 누군가는 일도 해야 하다 보니 전체의 뒷풀이라기 보다는 누군가가(특히나 엄마들의 희생) 열심히 일하는 동안 밥을 먹거나 간단한 음주를 하게 되면서 함께 즐기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간의 문제와 운영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함께 자리를 잡고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행사진행전조금더적극적인외부홍보도괜찮을것같습니다.

행사 동영상 촬영이 있었으면 좋겠음.

특별히 바라는 점 없습니다. 지금도 수고 많으세요.^^

책임 분담을 더 해주셔도 됩니다.

없다. 입학설명회에 앞서 나가는 거리 홍보 매뉴얼은 필요해보인다.

없습니다 충분히 고생많으십니다

훌륭합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처럼만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달팽이터전 홍보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 카페나 육아카페에도 홍보글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2. 달팽이 홈페이지에 바라는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응답 22개)

홈페이지 개편

홈페이지에 각 게시판이 너무 많은듯 싶을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글 표시를 놓쳐버리고 나면 어디에서 글이 새롭게 올라온지 찾기가 힘들어요.

구성요소는 좋은데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리뉴얼 했으면 하지만, 가능할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싶게 재미있게 만들어 주세요. (내용이나 화면 구성 등등)

접근이 쉬웠으면함

안쓰거나 중복되어 생략가능한 카테고리나 게시판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정리하는 것. 처음 들어오는 손님(조합원이 되기 전 관심자들이나 신규조합원)들이 좀더 쉽게 알수 있게 게시판 이름 변경하는 것.

조금 콤팩트하게 디자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게시판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모바일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바일에서 도 접근이 쉬웠으면 좋겠습니다.

모바일화였는데 밤하늘 감사합니다

이사회와 조합원, 졸업가구와 현재가구 등을 연결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 일정 공지는 배너를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주소록 업데이트 및 출력을 위한 편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량 큰 사진이나 동영상 업로드가 원활했으면...

디자인 개선. 카테고리 간략화.

달팽이에 관한 궁금한것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는 QnA 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범위하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으니, 차근차근 천천히 진행해주셔도 되요~

수정할수있는부분이 많지않다고알고있습니다.혹시수정이가능하다면첫화면의이미지를바꾸면어떨까합니다.

사진 업로드시 사이즈의 최대크기를 정하고 올리면 좋을듯요. 700px 가 적당해 보입니다.

모바일 접속가능하다고 공지하면 좋을 듯합니다.(최근 카톡방 공유내용)

글쎄요.. ^^

3. 공동육아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좋은 홍보수단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응답 22개)

잘 모르겠습니다.

마을잔치나 단오잔치 행사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걸 계획하고 가기에 따른 벽보나 전단지등을 배포하면 좋을 듯합니다

마을잔치, 봉사활동

아마들 차량 뒷 창문등에 '공동육아 달팽이어린이집'등의 글자를 붙여놓는건 어떨까요?

단오잔치나 달팽이 베품장 등을 열어서 지역에 홍보하고 같이 즐기면 어떨지.

우리 스스로 공동육아의 가치를 제대로 밝어나가고 있는지 먼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sns, 블로그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어린이집이 공동육아 식의 보육을 할 수 있도록요. (너무 먼 얘기?)

달팽이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

공동육아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더 발보아 줄수있는 것들(아이들의 사진,자연의 모습,자연물 놀이)을 보여주는 시간을 마련하여 홍보

격월이든 분기별이든 정기간행물 발간하여 선배조합원들이나 지역사회 기관등에 배포하고, 간행물을 통하여 우리가 공동육아를 어떻게 하는 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노출시키는 작업도 재미있을듯 합니다.

저희도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는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달팽이 자체에서 행사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는것은 어떨까요? (가령 김장을 담글때 더 많이 해서 독거노인들에게 선물하는것은 힘들까요? ^^;;;)

달팽이와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홍보가 아니라 가치에 대한 경험과 공유가 중요함.

행사진행시더많은홍보가이루어지면좋지않을까합니다.직접와서보고참여하는것이공동육아의가치를 가장잘느낄수있는방법이아닐까합니다.

인터넷검색노출

달팽이행사중 지역사회사람들과 함께하는 행사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일이 커질 것 같기도 하네요

벼룩시장이나 마을 행사를 주민들과 같이 하면 어떨까요

달팽이 내에서의 아이들의 생활이나 활동을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공개해서 일반 어린이집과의 차이를 알려주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 sns에 좋아요 라고 "달팽이 홈페이지" 기록하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캠페인을 조합원들이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단 등하원시 마주치는 터전 주변 이웃들에게 아마들이 먼저 인사하기 등 현재 우리가 스스로 지역사회에 가치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그 다음 홍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하는 행사들 (예를 들어 화성행궁축제같은)에 공동육아어린이집도 부스를 내서 참여하거나 거리홍보를 하여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에 신고하고 현수막 홍보는 어떨까요?^^

4. 조합원들의 원활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소통을 위한 좋은 방안을 제안해 주세요(응답 22개)

이런저런 소모임이나 티타임 같은 작은 모임이 많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터전에 아마 게시판을 만들어 정보(학급신문이나 게시판 같은)를 공유하고, 쪽지함 등을 만들어서 서로 편지나 쪽지를 주고 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짧더라도 잦은 교류

홈페이지가 다시 활성화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공지는 밴드 같은 걸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지 + 댓글의 구조) 홈페이지의 '우리들의 이야기'에 신변잡기들이 편안하게 올라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할 것 같고, 댓글도 좀 자유롭게 다는 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합원들 간에 좀더 서로를 알고 친해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 같아요. 릴레이인터뷰 같은 것은 좋은 기획인 것 같고, 팟캐스트 방송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월 1회 조합원 소식지 같은 걸 재밌게 구성해서 발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소모임을 통한 소통도 카톡이나 홈페이지 댓글보다는 맥락이해나 정서적 공유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발적 친목 도모 소모임

지금도 부족하진 않다. 너무 늘어난다면 피로감도 늘어날듯.

달팽이 홈페이지상에 '최신글' 을 모아놓은 탭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카톡은 ... 좀 피로하긴 해요.

생각해볼게요.

모바일앱의 활성화 및 발전

소위에 국한되지 않는 소모임 활성화

홍보소위와교육소위가함께세미나나홍보활동등을진행해보면어떨까합니다.단독으로홍보소위에서할수있는활동도좋지만다른소위와함께한다면조합원들끼리자연스런소통이가능할듯합니다.

방방....ㅋㅋ. 함께 방방을 타러가도 소통에 도움될 듯. 죄송합니다.^^ 카톡채팅방의 딱딱한 분위기만 해제해도 좀더 친목도 도모되고 화기애애한 소통이 이뤄질거 같아요. 지금은 전체 카톡방이 공지용으로만 쓸수 있어서 다소 경직되고 조심스러운 공간이에요.

육아, 공동체, 지역사회 관련 크고 작은 모임과 행사들이 촘촘히 기획되어서 그 안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골고루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많이 이야기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ㅠㅠ

과도한 소통은 안함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운영에 필요한만큼의 창구만 열어뒀으면 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과 방모임은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오프라인 소통시 여기까지만 하라는 약간의 통제가 부담이 되는듯합니다.조합원을 믿고 열어준다면 좋을것 같습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본인이 가장 자긴있는 내용으로 발표나 공유 또는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요?

5. 카톡방운영에 있어 불편하거나 개선될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응답 22개)

모든아마가함께있는전체방에서의규칙이있다고들었습니다.다시한번공지하고속지하면좋을듯합니다.

전체 공지를 카톡방에서 하는 것은 좀 불편합니다. 질문하기도 그렇고 좋거나 나쁘다는 반응을 표하기도 어렵습니다. 방별 카톡방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밴드나 카카오톡 아지트 같은 걸 사용하면 어떨까요???

정말 긴급하거나 필요한 공지 외엔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에서 생각을 나누면 좋겠어요.

카톡 자체는 크게 문제 될 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현재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카톡방의 종류와 이용수칙을 정리해 공유하면 현조합원이나 신입 조합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처럼 전체 공지방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모임방이 있는것이 좋은듯 싶습니다.

아무 이야기나 수다 떨 수 있는 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방, 아빠방 나누지 않고 전체 구성원이 자유롭게 들락거릴 수 있는.

특별히 없습니다

공지방은 공지만...

대부분행사에 있어, 홈페이지에도 모임공지가 잘 올라가고있습디다만, 카톡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홈페이지에도 잊지않고 공지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없습니다.

카톡이 불편 해요. 공지 이외에 선불리 농담이나 안부 묻기도 조심스럽구여. 개선은 조합원들간의 신뢰나 친목이 있으면 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카톡방이 공지만 하는게 편하긴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하는것을 서로 피곤하니까요. 하지만 공지방의 경우 답글을 못다니까 좀 상막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찾은 카톡 공지, 긴 글 등은 지양했으면 한다. 방모임, 홈페이지 활용.

카톡방의 대화에서 오해가 생겨 서로 맘상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글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는 있지만, 좀더 너그러운 마음과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되도록 오해 혹은 곡해하지말고 글을 읽었으면 좋겠네요.

불편한 점 없습니다

카톡은 공식적인 공지 통보 수단으로만 사용했으면 합니다.

너무 경직된 분위기가 불편합니다

6.홍보소위에 바라는 점이있으시면 적어주세요(응답 22개)

2016년도 수고해 주십시오. 참 달팽이 앨범은 나오는 건가요? ^^

소위 구성 인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소위로의 이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소위 화이팅~

다양한 역할이 구성원 모두에 의해 이루어졌으면 한다. 소식지와 신입가구 면담, 외부 홍보 외의 역할들도 고민해보면 좋겠다.

신입조합원 모집을 위한 각종 온라인상의 커뮤니티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홍보소위 분들 감사합니다

모바일 등으로 온라인 접근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이사님께서 많은 일을 해주시고 계셔서 밀의 소위원들에게도 많은 역할을 부여해서 나눠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내에 공동육아를 끊임없이 알려내는 작업? ^^

없습니다.

달팽이 앨범에는 정말 멋진 사진이 많아요. 인화해서 '달팽이사진전'라도 열어볼까요?

없습니다.

훌륭합니다.

신입 원아 상담 진행상황이 궁금할 때가 있음. 홈페이지 통해 가끔 공유했으면 함.

올해는 웹진 발행하면 좋을 거 같아요^^

더욱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도 지난해처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달팽이가 지역사회에 더 널리 알려지고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시설소위

1. 현재 터전의 시설 가운데 시급히 보수나 수리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적어주세요(응답 22개)

대문. 현재 문을 살짝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사용횟수가 많으니 더 확실히 튼튼한 재질로 문짝을 달고, 잠금장치와 손잡이도 조작성이 쉬운 문이 설치되면 좋겠네요. 걸쇠를 만질때 은근 손을 많이 다칩니다.

대문 수리, 지하창고 청소

올타리 대문 보수

대문 - 갈빗대가 빠져나옴

대문을 다시 만들어야 할듯 해요.

화장실. 방문. 등등 방문. / 세탁기 구입 (수건을 터전에서 세탁했으면 좋겠어요)

거실등과 부엌등을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엌 싱크대 앞 방충망도 매우 더럽습니다. 살펴봐 주세요.

화장실 몇몇 기구(바구니)등의 곰팡이가 많아요 교체하면 좋겠어요. 대문보강. 점점 기울고 있어요ㅠ

마당 흙(미끄럼틀 밑 말고) 교체

대문이 다시 삐걱거리고 안 잠기네요

대문 수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일부 파손 및 잘 안맞물리는 부분)

교사방 개선

나무대문 자물쇠. 잘 안됨.

대문수리가얼마전에이루어졌는데또삐그덕거리는것같습니다.

2층 세면대 물내려가는 곳 수리

대문앞에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디딤판 정도 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마당으로 가는 길, 뒷마당의 장독대 등을 안전하게.

부엌. 너무 노후화되고 지저분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 위에 만들어 놓은 지붕의 뼈대들이 다 녹이 슬어서 보수가 필요할듯 싶습니다.

터전 정문?

2. 올해 텃밭운영에 관한 아이디어(작물의 종류,관리방법등)가 있으시면 적어주세요(응답 22개)

터전앞에 작은 텃밭에는 꿀단지가 자주 쓰시는 작물이 심어지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파, 당근, 감자, 배추, 무, 양파 같은거요. 그러면 좀더 가까운 식자재가 실현되고, 더 신선하고, 또 식비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관리가어려웠던것같습니다.전체아마와연계하여체계적인관리가필요할듯합니다.

텃밭관리팀을 꾸려 텃밭을 운영하고 매달 보고하고 사진을 올리고 하면 어떨까요? 물론 주말청소가구가 물주는 것은 유지하구요.

특별히 없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수박 키우기

텃밭운영은 아직 모르는 것이 많아서 더욱 배워가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를 짜든지, 전담반을 두든지.

(쌀이면 좋겠지만)밀이나 보리와 같은 곡식을 심어 아이들에게 곡식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텃밭소모임 운영으로 선생님들께서 텃밭관리에 부담을 덜어드렸으면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개개인마다 구역을 정해서 원하는것을 심고 키워보는건 어떨까요?

텃밭 관리를 주말청소가구가 아닌 소청소가구가 해당월에 함께 관리하는 건 어떨까 합니다.

터전앞 작은 텃밭에는 작물도 좋지만, 꽃씨를 뿌리는 건 어떨까요?

텃밭소위를 만들어서 좀더 자신있는 분들이 참여하여 운영하고 조합원들은 소위의 운영계획에 참여하는데 어떨까요

귀염둥이가 그때 그때 작물을 잘 심으시던데. 신경 덜 쓰시도록 관리를 더 열심히 해 드릴 생각입니

다.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건 너무 힘들까요? ^^;;

텃밭의 상황을 돌아가면서 사진촬영하여 공유하면 어떨까요?

한해 동안 아이들 먹을 제철 채소와 아이들과 함께할 텃밭활동을 고려한 일년 텃밭계획도와 달력이 교사회와 상의해서 나오면 좋겠다. 매년 늦거나 너무 많이 심어 버려지는 작물, 쓰이지 않는 텃밭 공간이 아쉽다.

텃밭 소모임? 등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텃밭 작업 관련 기획, 총괄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설소위 소속이지만, 시설의 일 범위가 넓으니 텃밭이 비교적 내버려져 있는 것 같아요.

샐러드용채소재배가 늘면 좋겠다 (바질 브로콜리등)

잘 모르겠습니다

3. 현재주말청소와 소청소가 아마다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매주 시행되어지는 주말 청소와 매달 이뤄지고 있는 소청소에 관련한 의견 있으시면 적어주세요(청소 횟수, 방법등)(응답 22개)

현재방식이 좋은 듯합니다

아직 안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주말 청소를 없애고, 소청소는 가구수를 줄여서 내실 있게 운영.

주말청소는 금요일 음식쓰레기 수거, 수건세탁, 놀이매트 세탁, 컵샴기 등으로 할 일을 최소화하여 부담을 줄이고, 대신 여러 가구가 같이 하는 소청소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청소시 체크리스트도 필요합니다. 청소여사님이 월요일에도 오시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까요?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

주말청소는 한 가구가 하기에는 좀 벅찬 듯 하니 세 가구 정도가 모여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소청소는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가구가 모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청소로 할 것들은 시설소위+자원봉사아마가 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소청소와 주말청소가 동시에 있을때 서로 함께 청소를 하는것은 힘들까요?

적당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같습니다.

주말청소가 한 가정이 하기에는 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가구가 짝을 지어 함께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현재처럼 진행되면 될 듯합니다.

소청소시에 아이들 인형과 보자기등을 모두 세탁하고 장난감들도 알코올 소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청소시 발매트도 가져가 샅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분이 더 필요할것 같습니다

일년에 몇번 안 되긴 하지만 주말청소 좀 힘들긴 하죠. 하루종일 힘들게 하는데 청소가 잘 된건지도 모르겠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모르겠네요.

앞서 말씀드린거와 같이 주말청소 그룹제를 하면 좋을거 같구요. 바닥청소도 중요하지만 천장이나 가구 위등의 위에 쌓은 먼지도 신경쓰면 좋겠습니다.

소청소과 주말청소가 중복되는 경우 주말 청소를 배정하지 않아도 될꺼 같아요. 그리고 청소할때 체크리스트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 도구나 방법등을 안내하는 메뉴얼이 있으면 훨씬 좋겠어요. 청소기가 어디에 있는지. 세제가 어디있는지.. 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냥 전화하고 물어보고 뒤져보다 찾아 해야 했었기에...

주말청소는 격주로라도 시설소위에서 하면 어떨지? 여러명이 하면 금방 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없습니다.

소청소가구수가 5가구나 될 필요가 없는 듯요. 3가구 정도여도 될 듯 합니다.

각 가구마다 주말청소의 정도차가 있는듯하다. 한 가구가 하기엔 벅찬 때도 있다. 상대적으로 소청소는 할 일이 너무 적을때가 많다. 차라리 주말청소를 두세가구가 같이 하고 소청소를 없애면 어떨지.

4. 그 밖에 시설소위에 건의하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아무거나 상관없어요~~)(응답 22개)

시설소위가 아닌 아빠들에게도 작업일정 공유해 주세요^^

방문 꾸미기, 2층계단 꾸미기 등 테마를 정해 시설소위 주축으로 소위 외 관심있는 사람들 모여 반기별로 하나씩 터전 시설 보수해가면 어떨까요^^

진공청소기 구입. 좋은 걸로요. / 자주 터전에 모이다 보면 할 일도 보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개미가 혼자 일하지 않도록 많이들 도와주세요 ^^

올해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신입으로 아빠들이 들어오면 소위원으로 소속감을 심어주시고 소위원간의 소통및교류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양매직 청소기 필터가 작으니, 청소기 사용후 필터 청소 필수 라고 청소기에 적어주시면 좋을듯함

니다.

열심히 잘해주고 계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터전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도 시설소위가 역할을 했으면 한다.

시설소위 늘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수고해 주세요

세탁기와 건조기 설치요. 터전 수건과 이불을 터전에서 빨고 말릴 수 있는 시스템이면 좋겠어요. 분실도 없앨 수 있고, 운반하는 수고도 없어지고....주말청소때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는건 큰 수고로움은 아닐 듯 합니다. 어차피 기계가 하니까요.

아빠들 수고많으십니다^^

영구터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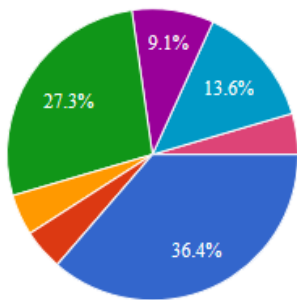
훌륭합니다.

2016년도 수고하십시오.

특별히 없습니다.

교육소위

1. 2016년 조합원교육으로 우선적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골라주세요(응답 22개)



- 공동육아운동 이념 및 가치 (공동육아의 역사, 철학 등)
- 육아관련 부모교육(예-성교육, 자녀대화법, 놀이법,, 등)
- 문화교육(예-음악, 만들기, 취미활동 등)
- 조합원간의 의사소통교육
- 사회문제에 관한 다양한 주제(예-세월호, 탈핵, 환경, 통일, 등)
- 조합원힐링(예-마음나누기, 명상, 등)
- 기타

공동육아운동 이념 및 가치 (공동육아의 역사, 철학 등)	8
육아관련 부모교육(예-성교육, 자녀대화법, 놀이법,, 등)	1
문화교육(예-음악, 만들기, 취미활동 등)	1
조합원간의 의사소통교육	6
사회문제에 관한 다양한 주제(예-세월호, 탈핵, 환경, 통일, 등)	2
조합원힐링(예-마음나누기, 명상, 등)	3

2. 신입 조합원 교육은 그동안 정관, 운영규정을 함께 읽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최근에 정관 설명을 축소하고 '달팽이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전달 및 터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입 조합원 교육에 추가되거나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응답 22개)

잘 모르겠습니다.

터전구석구석 돌아본 것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 나들이 장소도 가보면 좋겠습니다.

1회가 아닌 달팽이 들어오기 전, 한달 후, 두달후, 세달 후 등 3~4회 정도 교육자리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조합생활하면서 접하게 되는 궁금증 등도 그 배경이나 과거상황을 들을 수 있고요.

공동육아의 이념,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설명회, 선후배 공동세미나 같은 것.

달팽이 상황에 대한 솔직한 전달

현 조합원 소개서? 현 조합원의 별명과 아이 등의 간략한 정보지가 있으면 좋을거 같아요.

교육이 일회로 마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안부묻기, 아이들 챙기기등 조금더 배려받고 챙김 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피드백 주는 것이 중요할 듯이요.

바뀐 방식 마음에 드네요.

안내서 내용의 보충이 필요할 것 같고, 터전을 돌며 설명 듣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부분들도 표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가구라면 누구나 신입조합원교육 내용을 동일하게 전달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육아에 대한 설명과 철학,이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터전 구석구석 투어하는게 너무 좋았습니다

날적이의 쓰임과 필요성, 장점에 대한 설명. 경험자로서 교사와의 소통방법 알려주기.

정관설명과운영규정도중요하지만지금의방식이훨씬부드럽게다가갈수있는방법인것같습니다.추가나 개선방안은없습니다.

일반조합원들에게도 필요한 교육(‘달팽이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일수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1회 정도는 다 모인 자리에서 기존 조합원들도 다 같이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정관을 함께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그때 아니면 잘 안 읽게 되는지라.

현재 개선된 방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신입조합원 교육이 1회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4회 정도 프로그램으로 적응을 도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투약의뢰서 보일러작동 세제사용 등등의 사용설명및 매뉴얼마련

물론 신입조합원의 입장에서 힘들수도 있지만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질문과 응답시간을 마련하여 평소 궁금한것을 미리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훌륭합니다.

상반기 가구에는 터전사용설명은 없었다. 그러면 길눈이의 역할이 부담되게 된다. 안내서도 지속적으로 내용보충하고 공동육아의 기본 가치를 확인하는 교육이 신입이든 기존 조합원들에게 있었으면

한다.

3. 신입환영회는 2015년까지 주말 번개 모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능한 5~6 가족과 함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16년에는 터전에서 모든 가구가 함께 직접 밥을 지어먹으며 신입가구를 환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및 앞으로 신입가구의 환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응답 22개)

종종있는 행사모임때 같이 하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다수의가족과 밥을 먹은 기억은. 솔직히 불편했어요. 저는. ^^;; 이목이 집중되고 사람들도 파악 안되고. 아이들도 정신없는 가운데. 그냥 환영받는다고 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개인적...) 밥을 나누는 것 보다 차를 나누는 것도 좋구여. 한번 환영했다 말고. 두세번 차를 마시며 터전살이에 대해 공동육아에 대해 알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잠시 해보았습니다. ^^

터전에서 모든가구가 함께 환영해주는게 우선 진행되고 길눈이 가구와 몇몇가구가 최대한 자주 만남을 주선해주는 형식

개별적인 환영자리는 개별적인 비공식 모임의 자리같은 느낌이 들어 전체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환영을 했던 올해의 경우가 좋은것 같습니다.

좀 더 길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환영회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정보다는 터전에서 참여 가능 가구가 모여 환영해주는 것이 좀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터전에서 같이 어울리고... 대신 프로그램은 정해서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음. 터전에서 밥을 해먹는 취지는 좋지만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임.

이견 없습니다

작년에 진행한 방식이 더 좋은것같습니다

주말에 번개모임으로 하는 것이 운영소위에게 부담이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구라기 보다는 길눈이를 중심으로 가능한 가구로 자유롭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방식이 더 부담없고 좋은 듯요.

터전에서 밥해먹으며 맞이하는거 좋아요. 근데 신입환영회에서 술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신입가구와 식사 후 차마시기 정도가 좋을거 같아요. 시간도 너무 늦게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입가구도 처음부터 너무 긴 시간은 불편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합니다.

참여가능한모든가구가참여하는지금의방법이좋은것같습니다.

신입 조합원이 길눈이네와 첫 밥을 먹을때 원하는 몇가족만 더 초대해서 밥먹는 방식으로 환영회를 대신하면 어떨지. 터전에서든 길눈이네서든 식당에서든 그건 자유. 신입이 한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는데 매번 모두의 참여가 독려되는 환영회가 반복되면 터전행사에 대한 피로감으로 다가온다.

터전에 다같이 모여 밥먹으면서 환영하는게 더 좋은것 같습니다

신입가구의 환영은 모두가 함께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현재와 같은 방식이 좋습니다. 다만 같이 밥먹으며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걸로.

환영회가 다수가 아니고 소수여도 좋을 것 같고, 차마시고 수다떨수 있는 가벼운 환영회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길눈이는 신입 가구가 조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첫 등원시 준비물, 첫 청소, 공식 행사 및 모임, 아빠모임 등을 챙겨주고 참석을 독려합니다. 길눈이 역할에 추가할 것이나 수정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응답 22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친절한 안내.

등원전, 길눈이 가구와 신입가구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기 는 권장사항으로 넣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현재 정해진 부분들이 다 지켜질 수 있다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식사나간단한티타임등의일이좀더활발히이루어지면어떨까합니다.

길눈이 가구를 2가구 정도로 늘리면 서로 부담도 덜고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없는것 같습니다.

길눈이의 역할을 정해주는 것은 좋지만, 피치못할 사정(현실적으로 너무 바쁘다거나...)으로 길눈이의 역할을 못할 경우 길눈이는 마음의 짐이 클테고, 신입가구의 경우 섭섭한 마음이 생기지않을까요. 특히 가정으로 식사초대는 필수보다는 하면 좋은 선택사항으로 두면 어떨지요.

신입가구를 한가구이상이 초대해주거나 마실문화에 대한 안내

길눈이를 두셋 가구가 같이 하면 어떨까요?

길눈이 자가 체크리스트를 길눈이들에게 배포하여 회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신입가구들에게도 설문지 회수절차가 작년에 빠졌는데 올해는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가구가 아닌 두가구가 크로스 관리하면 어떨까요?

길눈이의 역할은 첫청소, 첫밥 한번, 얼굴 익히기 전 문의가 있을때 편하게 물을 상대정도면 된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조합차원의 일이었으면 한다.

적응하며 스스로의 방향결정에 수월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1가구의 길눈이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친절하지 않은 길눈이를 만났을때 신규조합원의 복불복도 있어요. 2~3가구가 팀이 되는 길눈이는 어떨지요..그러면 친목과 소통에서 더욱 장정도 많을거 같고, 각 길눈이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거같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없는 듯요.

역할의 추가보다는 지금 주어진 역할을 더욱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눈이가 신입가구에게 첫 한 달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해서 궁금하거나 불편한 것은 없는지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것 같아요

이것 저것 생각해 보았지만 어쩌면 개인의 정치적인 사건이 들어가는 이야기들을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 같아 중립성을 지키는 역할이 되어야 할것 같다는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5.교육소위에 바라는 점이있으시면 적어주세요.(응답 22개)

올 한해 좋은 교육 기획 부탁드립니다

달팽이 내부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공교에서 공공교 홈페이지에 교육(2~3년차 아마워한 교육) 공지가 되면, 조합게시판에 올려서 활발한 교육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6년에는 조합원 대상으로 교육활동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허 ·

조합원들끼리 주제를 정하여 이야기 하며, 개인의 삶과 생각도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소박한 교육이 좋습니다. ^^

크고 작은 모임과 교육을 진행해주세요. 더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조합원들을 이끌어주세요.

올 한해도 많이 수고해주시시오. 감사합니다.

조합원 교육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많이 교육해 주세요 ^^

잘부탁드립니다

2016년에도 수고하십시오.

메르스 등의 이유가 있었다해도 작년 한 해 조합원 교육(온이든 오프든)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공동육아의 가치를 공유하고 사회에서 우리의 역할을 되새기는 작업을 해주었으면 한다.

없습니다. 공동육아 관련 좋은 서적 소개, 독서 후 감상 나누기 모임 개최 등

열심히해주고계셔서늘감사드립니다.

교육소위의 중요한 역할 중하나가 조합원들간의 소통, 조합원들과 교사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육아의 개념도 좋고 기타 사회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는 시간도 좋지만 그 전에 작년처럼 조합원들의 불만이 쌓여 갈등이 만들어지기 전에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서로 얼굴 볼 수 있는 기회등을 더 많이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규행사 이외의 작은 모임을 주최 또는 주선해주세요. 영화, 공연 안내 혹은 공원나들이도 좋아요. 주말에 함께 즐길 수 있는 꺼리가 더 많아지는 달팽이였으면 좋겠어요.

공동육아에 대한 조합원 교육이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교육모임 많이 진행해 주세요. 늘 유익하고 배울 수 있어 좋아요.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더 많고 다양한 교육부탁드립니다.

교육간담회에서는 교사분들의 조언이나 충고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자주, 매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내용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설문지작성시 뒷편에 자주하는질문 및 답변은 모아서 사전에 읽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재정소위

1.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이후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매달 개인비용청구서를 모아서 매월 마지막주에 한꺼번에 이체처리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응답 22개)

좋을것 같습니다

서로를위해좋은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아직 한번도 개인비용청구서를 써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월말까지 가지고 있다가 내는건 불편할거같아요.. 재정우편함 같은걸 만들어서 바로바로 영수증을 넣는건 어떨까요?

청구비용 등에 따라 일괄 월말 처리는 가구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어떨까요?

재정관리의 효율성이 높다면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뭐라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중간중간 지출액의 규모가 확인되지 않으면 월말에 지출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찬성합니다

잘 모르기에 그렇게 처리해도 되고 재정소위에서 업무처리에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괜찮습니다.

해당 건이 발생할때마다 처리할 수 없으니 한달에 한번씩 하는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2. 사협 전환으로 회계부분에도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많습디다만, 사협 (또는 우리 어린이집) 회계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응답 22개)

회계는 잘 몰라서 뭐를 모르는지도 모르네요. 알려주시면 공부하며 알아갈게요.

조합원의 공금 지출 절차를 잘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매달 상황을 홈페이지에 고지하면 어떨까요? 매달. 반기별. 연별

사협 전환시 가구당 1개정도의 법인카드 발급이 가능한지요

상반기엔 가끔 그달의 재정내역이 올라오다가 하반기에 전혀 보지 못했다. 달팽이 살림을 알 수 있게 매달 홈페이지에 올라왔으면 한다.

아직 변화되는 부분을 거의 알지 못해서...

아직잘모르겠음

특별한 궁금함 없습니다.

회계는 잘 몰라서 특별히 없습니다

조합원이 회계자료를 어떻게 열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 잘 알려주세요 ^^

훌륭합니다

재정과회계에관해잘알지못해없습니다.죄송합니다.

조합비에 대한 기부금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달이나 혹은 분기별로라도 지출 총액이나 그런 회계 내용이 공지되면 좋겠어요.

3. 올해 재정 소위에 바라는점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응답 22개)

특별히 없다. 교사들 급여가 개선되기 위한 현실적인 조합비 인상안 등이 나오면 어떨지 궁금하다. 노 개위에서 풀 문제지만.

올해도 많은 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일이 늘 힘든데 올해도 수고해 주세요.

2016년에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올한해도 잘 부탁 드립니다.

사실 재정이 어떻게 쓰이고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저 적자라는 것 말고는. 그래서... 매월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한 수입지출 결산서라도 게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교사들 인건비나 복리후생비가 얼마인지. 애들 식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그런 감이 있으면 터전 살림살이 이해에 도움이 될듯 싶네요. ^^

세무사를 활용하셔서 업무를 줄이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조합비 통장과 기금 통장의 이름을 구분할 수는 없나요? 현재 같은 이름으로 나와서 가끔 헷갈려요 @_@;

세무사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협전환으로인해 일이 복잡해졌는데 힘내세요

늘열심히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달팽이의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반 조합원들이 좀더 쉽게...자주 알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세요. 알기쉬운 글로 자주 공지한다던지....지금은 총회때 공지되는것만 본 것 같아서요...

※ 한해동안 조합비, 기금, 보육료, 기타 벌금 등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긴설문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문항외에 바라는점이나 하고싶으신 말씀 편하게 적어주세요(응답 22개)

엄마 아빠들이 행복한 조합이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아이 키우는 부모이자 동지로서 서로 의지하고 힘 북돋아주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달팽이는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달팽이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혼납니까?

그간 이사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립니다.

좀더 행복하고 즐거운 달팽이가 되길 바래요. 마치 한 가족처럼~

올 한해 협동조합이 잘 되어서 연말 쯤엔 더 멋진 사업 계획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ㅎㅎ

기대합니다!!

올 한해도 아이와 아마 모두 즐겁고 유익한 달팽이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합차원에서 구청에 민원을 넣고 싶은게 두개있습니다 1. 터전 앞 가로등 설치 2. 터전 앞 일방통행 실시

늘 그렇듯, 행복한 달팽이를 꿈꿉니다

이사회 늘 응원하고 달팽이를 위해 일해주심에 감사합니다.

2016년 달팽이가 이사회 주도아래 편안하고 즐거운,재미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회분들께서늘고생해주시는점잘알고있습니다.올해는좀더다양하고깊은소통을통해서서로간의오해가적은한해가되었으면합니다.늘조합원의목소리에귀기울여주셔서감사합니다.

즐거운 2016년 달팽이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여러 면에서 매우 변화가 많고, 할 일이 많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사진 모두 수고하십시오. 적극 응원하고 참여하겠습니다. ^^

그냥 달팽이 가족 모두 편안하고 재미나게 또 건강하게 한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달팽이에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도 많았고, 힘들고 아쉬웠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처음 이곳에 모이게 된 이유와 취지처럼 그리고 진정 아이들과 우리 달팽이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잊어서는 안될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과 서로간에 지켜야 할 예의들은 어느 순간에도 잊어서는 안될것들 같습니다. 서로 조금만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아이들이 달팽이를 통해서 성장하는 만큼 우리 아들도 같이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6년** 새로운 달팽이 힘차게 이끌어주시요. 항상 뒤에서 열심히 밀어올리며 따라가겠습니다.

운영이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달팽이어린이집에 제 아이는 즐겁게 다닙니다. 다만 운영이사분들께 너무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소수의 희생으로 어린이집이 운영되기보다는 다수 조합원들이 도와 함께 덜 힘들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메뉴얼을 만들어 과중한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즐거운 운영이사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공동육아. 공동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고, 모든 조합원이 함께 성장하는 달팽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달팽이의 평 조합원으로 지내도 참 할일이나 생각할게 많은데 이사분들의 깊은 고민과 희생...고생에 정말 감사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2016년**에는 너무 늦게까지 회의하시지 마시고, 주말이나 평일저녁에 조각회의나 온라인도 적극 활용하셔서.....부디 회의로 인한 이사님들의 자녀들과 다른 가족의 피해가 최소화되길 빌어봅니다. 이사회할때도 아이보기 도움 쓰시는것도 한번 생각해보셔도 좋을거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희생으로 회의하는거 점차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할거같아요.

올 한해 고생하실 이사진 분들께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